

Mesoamérica ‘켓짤’ 조룡과 신라 ‘계룡’의 신화예술적 상징 연구

김창환

스페인·중남미학과

I. 머리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신화와 민담의 이야기 속에는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이른바 신화소(神話素: Mythologem)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원형(原型: arquetipo)의 내용 또는 원형상이라 한다. 그런데 원형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 지리적 조건의 차이, 인종의 차이를 넘어선 보편적인 인간성의 조건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다. 흔히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 인디오는, 대개가 지금으로부터 2만년 전에 아시아로부터 배령해협을, 빙하로 덮인 육로 및 해로를 이용하여 건너 갔다고 하는 학설이 있다.¹⁾ 바로 이 학설에 근거하여 여러가지 문화인류학적인 친근성이나 차이점들을 찾아보는 학문적 접근방법이 통용되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남·북아메리카의 모든 원주민이 아시아에서 왔다고만은 볼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 ‘인디오의 아시아 기원설’에 대해서 보충하는 학설이나 이에 도전하는 견해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지역의 문화에 원형상을 연구하는 데에는 반드시 그러한 민족이동의 시각에서만 볼 필요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술한 바처럼 “보편적 인간성의 조건”을 중요시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논하려 한다. 그래서 원형 또는 원형상은, “결코

1) Concepción Barrón de Morán, *Historia de México*(México: Editorial Porrúa, 1969), pp.12-17.

전통이나 언어 또는 민족이동으로 전파되어온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저절로 다시 생겨날 수 있는 것이며, 그것도 아무런 외래적인 매개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재생되는 것이다”라고 보는 칼·구스타브·융(Carl Gustav Jung)의 입장²⁾을 중요시한다.

본고는 칼·구스타브·융의 견해를 참고하면서, 메소아메리카(Mesoamerica)와 한국간에 몇가지 원형상을 비교 고찰하려 한다. 첫째로 콧짚鳥龍(Quetzalcóatl)과 계룡(鷄龍)의 상징화(iconología)를 중심으로 그 원형상들의 생성배경과 의미를 분석하고, 둘째로는 메소아메리카의 구꾸마쓰(Gucumatz)왕과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의 천지내왕에 얽힌 신화소의 유사성을 살펴 본 다음, 셋째로는 콧짚조룡과 계룡이 각각 태어난 그 배경의 땅에 얽힌 “뱀 신화소”에 대해 고찰하고, 끝으로 메소아메리카의 콧짚조룡과 신라의 계룡이 추구한 두 원형상의 목적론적 의미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 기본이 되는 자료는 주로 메소아메리카의 신화전설집 뽀뽀부(Popol Vuh)³⁾와 한국의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논술코자 한다.

II. 콧짚조룡(QUETZALCOATL)과 계룡의 신화소 비교

콧짚(Quetzal)새는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과테말라의 나라 새(國鳥)이다. 반금류에 속하며 주로 초목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평화로운 이 새는, 몸의 길이가 머리에서 몸통 끝까지 약 40센티미터로서 몸체의 상층부는 녹색 바탕에 무지개빛이 감도는 아름다운 깃털을 갖고 있고, 가슴팍과 복부의 깃털은 붉은색이다. 긴 꼬리는 80센티미터에 달한다.⁴⁾ 메소아

2) Carl Gustav Jung, *Von den Wurzeln des Bewusstseins*(Zürich: Rascher, 1954), p.96 참조.

3) 알프레도·베이라베(Alfredo Veiravé)는 저서 *Literatura Hispanoamericana*에서 뽀뽀부를 페르시아의 Zend Avesta나 인도의 Rig Veda 보다 더 앞서 나온 “인류역사에 관한 가장 오래된 문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4) Redactores del Editorial Planeta, *Nueva Enciclopedia Larousse*(Barcelona-Madrid:

메리카에서는 켈잘새의 아름다운 형상을 높이 평가하여 이 새를 “신대륙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la más bella de las aves del Nuevo Mundo)라고 인정해 왔다. 그러므로 메소아메리카의 인디오들이 전통적으로 국왕이나 귀족들의 儀式에 쓰는 귀중한 의상이나 의관과 장식품 제작에 켈잘새의 깃털을 많이 사용해 온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다. 특히 메소아메리카 인디오들이 국왕의 의관을 켈잘새의 깃털로써 만든 것은, 신라의 왕관이 금관으로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당초에 평의 깃털처럼 귀한 조류의 아름다운 깃털을 사용했던 사실과 대비하면 그 원형면에서 유사성을 부정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계룡의 상징화의 일부인 닭은 역시 평과에 속하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가치가 있다.

「뽀뽀부」의 제1부 제1장에서, 창조주와 양성주(el Formador)인 테페우(Tepeu)와 구꾸마쯔(Gucumatz)는 시조신으로서 그들의 신변이 밝은 빛으로 환하게 둘러싸인 채 물속에 있었다고 하며, 그들은 녹색과 청색의 아름다운 깃털로써 몸을 감싸고 있었기에 그들을 “구꾸마쯔”라 칭하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대개 키체(Quiché)왕국의 국조신(國祖神) 구꾸마쯔는 뱀(cóatl)룡의 신화소로서 거처를 강이나 바다로 하는 水神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구꾸마쯔”에서 구꾸(Guc)는 키체어로 q’uc라는 이름의 새를 말하며, 이 새를 마야(Maya)말로는 꾀꾸(Kuk)라 불렀고, 아스테카시대의 공용어였던 나와플어로는 켈잘리(quetzalli)라 하였으니, 이것은 오늘날의 과테말라공화국의 국조인 “켓잘”을 가리키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뽀뽀부」의 설화에서 “구꾸마쯔”라는 낱말은 키체어 휘이고, 마야어로는 꾸쿨칸(Kukulcán)이라 했으며, 멕시코의 톨테카·인디오들은 나와플말로 켈잘꼬아뜰(Quetzalcóatl)이라 칭하였던 것이다. 이 낱말들에서, 켈잘(quetzal), 꾀꾸(Kuk), 구꾸(guc)는 공통적으로 켈잘새를 말하며, 꼬아뜰(cóatl), 쿨칸(Kulcán), 꾸마쯔(cumatz)는 大蛇 즉 뱀룡

Editorial Planeta, 1984), p.8209.

5) Adrián Recinos(Traductor), *Popol Vuh*(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1987), p.23.

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꾸마쯔, 꾸꿀칸, 켈짚꼬아뜰은 모두가 합성어이며 그 뜻을 풀이하면 “켈짚새의 깃털로 덮혀 있는 큰 뱀”을 뜻한다. 떼뻬우와 구꾸마쯔라는 키체족의 시조신은 두 분으로서 이원화되어 있고, 그 임무 역시 전자는 창조에, 그리고 후자는 창조된 인간을 충실하게 양성하는 일에 힘으로써 분업화 했음을 알 수 있다. “깃털 뱀”으로 상형화 한 구꾸마쯔는 이미 보통의 차원을 초월하여 상징성을 강화시키는 ‘상상의 사닥다리’를 올라와서 존립하는 水神(이므로⁶⁾) 신화적인 해석의 눈으로 본다면 “뱀룡神”으로서 막강한 권능을 가진 위대한 존재임이 틀림없다. 메소아메리카의 정복초기에 선교임무를 담당하였던 누녜스·데·라·베가(Núñez de la Vega)주교는 키체 인디오들이 “구꾸마쯔”라는 이름을 “물의 원소”와 연관시켜 신앙하고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한 각치켈족의 설화집에 의하면, 과테말라 지방으로 이주해 온 선주민족 중에는 그 민족의 구원이 오직 물 속에 있다고 신앙하는 “구꾸마쯔”라는 이름의 부족이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⁷⁾

구꾸마쯔의 동반신 “떼뻬우”는 나와뜰어의 국왕 또는 주권자에 상당하는 떼뻬우흐(Tepeuh), 떼뻬와니(Tepeuani)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크리스토팔·데·몰리나(Cristóbal de Molina) 신부는 이것을 ‘전승자’ 또는 ‘정복자’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곧 생사여탈권을 가진 ‘절대군주’를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정일치를 중요시 하였던 톨테카·인디오들⁸⁾과 아스테카·인디오 시대에는 통치자인 국왕을 “켈짚꼬아뜰”이라 칭하였고, 마야시대에도 국왕을 일컬어 역시 같은 의미의 칭호인 “꾸꿀칸”이라 불렀던 것이다. 그래서 마야 신제국시대에는 “꾸꿀칸”은 그야말로 ‘정복

6) 「아드리안·레시노스」는 야키·인디오들이 숭상하는 방울뱀 신(Yolcuat), 푸른 깃털 뱀신(Quitzaucuat), 그리고 마야·인디오들의 푸른 깃털 뱀신(Kukulcán)과 키체 인디오들의 깃털 뱀신(Gucumatz)과 뱀신(Tohil)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비의 신”들이기도 하다고 해석한다.

7) Adrián Recinos, *op. cit.*, p.166 참조.

8) 톨테카 제국에서는, 제1제국의 시조를 믹스꼬아뜰(935-947)이라 칭하였고, 켈짚꼬아뜰神을 제사 지내는 현자이며 사제였던 국왕을 “세·아까뜰·또벨친·켈짚꼬아뜰”(Ce Acatl Topiltzin Quetzalcóatl)이라 불렀다.

자’-‘문명의 시혜자’-‘유카탄의 신’을 뜻하는 최고의 절대자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켓잘꼬아뜰”은 멕시코, 유카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 메소아메리카 지역에서 정복시대 이전에는 민간신앙에 절대적으로 숭상되었다. 특히 멕시코의 아스테카인들은 그들의 부족별 토속신들과 함께 “켓잘꼬아뜰”을 ‘지혜의 신’-‘셋별 신’-‘하오의 별신’-‘문화의 영웅’-‘세계의 창조자’를 뜻하는 상징으로 숭상하였다. “켓잘꼬아뜰”의 相形은, 메소아메리카의 유적지들 가운데 신전이나 피라밋의 석조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켓잘꼬아뜰”에 대한 숭배사상은 켓잘꼬아뜰 신전을 많이 건축하기 시작한 메오피와칸 문화의 전성기에 해당하는 서기 350년에서 650년까지가 왕성하였다. 그리고 서기 8세기부터 13세기에 이르는 기간에 지금의 멕시코 이달고(Hidalgo)주의 톨라(Tula)를 도읍지로 해서 뻗어 나간 톨떼카족으로부터 문화적 영향을 받은 다른 지방에서 역시 “켓잘꼬아뜰”의 형상을 볼 수 있다.

켓잘꼬아뜰 사원이 건립되었던 멕시코의 메오피와칸에 있는 켓잘꼬아뜰의 피라밋에 석조로 조각된 ‘뱀의 두상’들은 목덜미 부분에서 새의 깃털들이 마치 닭싸움을 할 때 콧꿨이 선 수탉의 털을 연상해 주듯 둥근 부채처럼 일어섰다.⁹⁾ 소위 메히꼬제국의 전신으로서 멕시코 계곡(el Valle de México)을 지배했던 텍빠네카 제국(Imperio Tecpaneca)의 유적지인 테나유카(Tenayuca)의 피라밋에 있는 제단의 석조물에서도 역시 그 당시에 숭상하던 켓잘꼬아뜰 상(像)을 볼 수 있다.¹⁰⁾ 테나유카의 켓잘꼬아뜰 상은 화산석을 다듬어 만든 것으로서 주목되는 부분은 머리 위에 있는 ‘닭뿔’같은 구조물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그것은 닭의 뿔에서 따온 고상한 이미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다. 물론 ‘뿔’은 닭을 비롯한 평과에 속하는 동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메소아메리카의 켓잘꼬아뜰의 원형상은 공포심을 주며 치명적인 독을 지닌 “큰 뱀의 강점”에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켓잘꼬아뜰의 장점”을 상호보충하여 상상해 만든

9) Concepción Barrón de Morán, *op. cit.*, p.60.; 본고 부록 그림 1 참조.

10) *Ibid.*, p.112; 본고 부록 그림 2 참조.

신화적인 동물로서, 이것은 제정일치 시대였던 그 당시에 현실적 차원에서 통치의 구심점이 필요하였으므로 최고의 통치자인 국왕의 표상인 동시에 국왕의 칭호로 쓰였던 것이며, 정신문화면에서는 백성들이 숭상하는 神의 상징으로 존립하였다.

메소아메리카의 상이한 왕국들에서 숭상해 온 켓짚꼬아플 상이 소위 “켓짚새의 깃털을 지닌 깃털 뱀”이나 “닭뿔과 재규어 이빨을 지닌 뱀”이라고 그 상징화(iconología)를 설명한다 하여도, 한국인의 해석적 시각에서 본다면 그 명칭을 달리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지렁이까지도 “土龍”이라고 호칭할 만큼 이미 신화적 차원에서 ‘상징화 하여 만든 뱀’은 뱀이 아닌 용으로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일단 “켓짚꼬아플”을 “켓짚鳥龍”이라 호칭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명칭을 보다 더 한국적으로 바꾸어 놓았을 때 곧 연상되는 것은 삼국유사의 설화에서 언급되고 있는 “계룡”이다.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의 그의 부인 알영에 얽힌 신화는 다음과 같이 전하여 내려온다.

“서라벌의 알천 냇가에서 가까운 양산 기슭에 서기가 비치고 하얀 백마가 내려와 라정 근처 수풀에서 큰 박처럼 생긴 보라빛 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었기에 육촌 우두머리들이 접근하자 그 백마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고, 그 알을 깨어 보니 사내아이가 나왔으므로 박같은 알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성을 박이라 정하고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으로 이름을 혁거세라고 불렀다.”¹¹⁾

앞에서 우리는 백마와 우물과 알이 합작하여 신라의 왕권을 창출해 내는 난생설화를 읽었고, 그 다음으로 본고에서 중요시 하는 “계룡”이 신라의 왕권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시조 박혁거세의 왕비가 될 알영을 탄생시키는 대목을 보면 이렇하다:

11) 박성봉/고경식(공역), 「삼국유사」(서울: 서문문화사, 1985), 66쪽 참조.

“사랑리라고 하는 곳에 알영이라는 우물이 있는데 어느날 이곳에 계룡이 한 마리 나타나 왼쪽 옆구리에서 여자아이를 하나 낳았다. 그 아이의 자태는 아름다웠으나 입술이 닭의 부리와 같았기에 이를 본 어느 할머니가 아이를 월성 북쪽에 있는 시내로 데리고 가서 씻겼더니 그 부리가 빠지면서 예쁘장한 사람의 입술이 나타났다는 것이며, 알영이라는 우물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름을 알영이라고 했다.”¹²⁾

알영이 탄생한 이후에 육촌 사람들이 남산 서쪽 비탈에다 궁실을 짓고서 전술한 두 주인공을 받들어 길렀으며, 박혁거세와 알영이 똑같이 13세가 되었을 때 서라벌의 왕과 왕비로 추대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계룡의 딸이 신라의 건국과 왕권창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신화적 진실이다.

박혁거세의 난생에 협력한 신화동물인 백마는 신통한 “천마”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날아왔고 또한 하늘로 올라간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박혁거세가 본래 “천국인”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그 하얀 “천마”의 출처와 무관하지 않다. 날아 다니는 말은 곧 서양인들이 말하는 날개가 달린 용마상을 연상시켜 주는 일면도 엿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독교 전통을 이어 온 서양인들이 중세시대에 그린 상징화에는 대다수의 용들이 악을 표상하고 있다.¹³⁾ 물론 켈트족들 가운데 드루이다(druida)교를 신봉하던 사람들은 윤회전생을 믿고, 용을 악의 표상으로만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버리고서 善의 표상으로도 관념하였다. 게르만 민족의 서사시 Nibelungen Lied에 보면, “불사의 神인 용의 피를 온몸에 바르고 출전하면 不死한다”고 노래하고 있다. 대개 서양인들이 중세시대에 그린 용상은, 큰 뱀의 몸체에 독수리 머리 또는 사나운 수탉의 머리와 엄청 큰 두 날개 그리고 강력한 발톱이 달린 발(2개의 발 또는 4개의 발)을 가진 형상이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삼국유사에는 혁거세의 탄생과 관련한 그 天

12) 한상수, 「한국인의 신화」(서울: 문음사, 1987), 286-287쪽; 박성봉/고경식, 앞의 책, 66-68쪽 참조.

13) 양명학, “한국소설에 나타난 용과 용궁의 상상” 『울산대학 이문논집』 제3호, 153쪽 참조.

馬의 모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다. 그러나 필자의 상상으로는 하얀 천마는, 큰뱀의 형상보다는 ‘백마의 형상에 더 가까운 평화로우면서도 초자연적인 원형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본고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핵심은 용마가 아니며 어디까지나 “계룡”과 “켓짚조룡”의 신화소적인 유사성에 두고자 한다. 그러므로 천마에 대한 언급은 여기에서 그만 두겠다.

비교신화론의 시각에서 볼 때, 닭의 부리를 지녔던 알영의 모체는 우물에 살고 있던 계룡이라 하였으니, 현상학적으로 연상할 경우 계룡의 머리에는 닭뿔이 있을 수 있는 것이며, 계룡에 대한 신화적 발상과 그 형상의 구현은 앞에서 예거한 “켓짚조룡”의 그것들과 그 원형상에서 대단히 근사하다는 인상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두 원형상이 추구하는 의미상의 목표도 역시 유사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첫째, 양자가 모두 비범한 지존의 신분 즉 국왕이나 왕비를 상징하기 위해서 창안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둘째, 상징화의 구성면에서는 뱀(大蛇)을 기초로 해서 그 상징의 심화 및 강화를 도모코자 부가적으로 닭과 새종류까지 동원하는 패러다임(paradigm)에서도 공통성을 띠고 있다. 세째 이유는 태초에 국조신 구꾸마쓰 즉 켓짚꼬아들은 물에서 살았다고 하는 점과 박혁거세의 부인 알영이 “알영정”이라는 우물에 사는 “계룡”의 딸이라는 점이 말해 주듯이, 양자가 공히 거처를 물에 두고 살았던 수신일 것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켓짚꼬아들과 계룡의 상형구조면을 볼 때, 닭이나 켓짚은 깃털과 날개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고, 위상면에서는下が 아닌 上을 지향하며 음양면에서는 양에 속한다. 또한 기본구조를 이루는 뱀은 지표를 기어다니거나 수면을 유영할 수 있기 때문에 위상면에서는 上이 아닌 下를 근본으로 삼고 있고, 차가운 냉혈동물이므로 음양구분에서는 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두 원형상이 표상하는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켓짚새와 닭이 갖추고 있는 날개의 깃털은 ‘하늘’(天上界 또는 천국)을 지향하는 것이고 ‘양’을 뜻하며 거기에는 태양신 내지 천신과 상통하는 신화소가 내

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는 ‘음’을 대표하면서 水神에 해당하는 ‘큰 뱀’ 곧 ‘뱀룡’은 땅에 가까운 물에 있으면서도 일단 羽毛로써 무장할 때 하위인 물을 止揚하고 ‘하늘’로 비상하는 상징성을 보충적으로 갖추게 되는 것이다. 또한 반금류에 속하는 켓잘새나 평과에 속하는 닭은 모두 나무나 화에 곧잘 오르며, 하늘을 지향한다. 특히 닭은 ‘태양을 부르는 새’로서 시간을 알리는 사자이므로 항상 하늘과 빛을 바라본다. 그래서 예로부터 농업의 절후와 농사의 시기를 지시해 주는 지혜로운 익조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메소아메리카의 원형상 : 켓잘꼬아들과 신라의 원형상 : 계룡이 추구하는 합목적론적 의미는 무엇인가? ‘닭’의 두상을 한 ‘용’ 즉 계룡의 딸과, 천상계로부터 지상계로 내려온 천마의 난생아가 결혼하여 신라의 최초의 왕비와 개국시조가 되었다는 신화는, 정치적 의미에서는 왕권창출을 위하여 ‘천상계’와 ‘지상계’ 그리고 ‘지하-수중계’가 유기적으로 동원하여 통합하는 영역 설정의 틀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은 양과 음이 조화로운 통합을 이룸으로써 거시적으로 보면 하나의 우주적 통합의 이미지를 표상하는 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 메소아메리카의 시조신과 마찬가지로, 마야왕국, 톨테카 왕국, 아스테카왕국, 텍빠네까제국, 키체왕국 등에서 최고 통치자인 국왕을 상징하는 원형상 : 켓잘조룡은 시초에 물에서 살았다고 하여 일단 수중계를 지배하는 ‘수신’으로 보았다. 그리고 아스테카시대에는 특히 ‘제사의 신’ ‘지혜의 신’ ‘새별 신’ ‘하오의 별신’과 동일시 하면서 숭앙하였고, ‘지혜의 신’은 흰 얼굴에다 긴 수염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언젠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며, 때로는 ‘바람의 신(Ehecatl)’과 혼동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켓잘조룡은 깃털이 덮힌 ‘뱀룡’이다. 그러므로 이 신화소의 기초동물인 뱀의 생태로 보아 켓잘뱀룡은 물속에서도 살고 지상을 기어다닐 수 있으며 켓잘새의 익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천국(천상계)을 지향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풀이할 경우, 제정일치의 최고 통치자로서 켓잘꼬아들의 탄생은 일단 ‘물’(바다 : 강)과 ‘하늘’에 근거를 둔 세력이 수중계와 천상계의 영역을 통합한 실체임을 나타내는 원형상이다. 따라서 엄밀한

시각으로 본다면 ‘지상계’에 대한 강력한 통합력이 계룡의 경우에 비하면 덜 구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박혁거세의 탄생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천마’처럼 천상계로부터 내려온 적극적 협력요소가 켓잘꼬아들의 생성 자체에서는 동원되지 않고 있다. 뽕뽕부 제1부 제1장의 내용에는, 우라칸(Huracán)이라는 이름을 가진 天心이 곧 하느님이며, 천심은 三位로 구성되어 있고, 제1위는 까풀라·우라칸(Caculhá Huracán), 제2위는 치삐·까풀라(Chipi-Caculhá), 제3위는 락하·까풀라(Raxa-Caculhá)인데, 이들이 켓잘꼬아들(일명 구꾸마쯔)의 탄생과 영역 설정에 직접적으로 협력하는 설명은 없다.¹⁴⁾ 그러므로 이러한 구조적 하자를 보다 세련된 설화로써 보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메소아메리카의 켓잘꼬아들 신화는 키체왕국시대에 와서 그 원형상을 한 차원 더 보강하고 발전시킨다. 다시 말하자면, 키체왕국의 제4대 군주인 구꾸마쯔가 신통하고도 불가사의한 자질을 발휘하여 “켓잘꼬아들”의 권능은 보다 구체적으로 강화되고 천상계-지상계-지하-수중계를 통합하는 그야말로 영역 표시가 보다 확실한 원형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에 대한 고찰은 다음 장에서 논급한다.

Ⅲ. 구꾸마쯔왕과 박혁거세의 천지내왕 비교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켓잘꼬아들”이라는 호칭과 그 실체는 키체왕국시대에 이르러서는 키체어로 “구꾸마쯔”라는 이름으로 전승되었다. 그러므로 켓잘꼬아들의 신화는, 키체왕국의 제4대 임금 구꾸마쯔 시대에 와서는 보다 높은 ‘상상의 사닥다리’를 등반함으로써, 완벽한 통합력을 갖춘 왕권정립의 토대를 구현해 주는 원형상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뽕뽕부 제4부 제9장에서 메소아메리카의 키체왕국 제4대 임금 구꾸마쯔의 불가사의한 신통적 자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4) Adrián Recinos, *op. cit.*, pp.23-24 참조.

“(· · ·) 진실로 구꾸마쯔왕은 불가사의한 왕이었다. 그는 7일간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한 시발바(지하국)로 내려 가시기 위해 7일 동안 길을 걸으셨으며, 7일간은 뱀으로 화하시며, 또한 7일간은 독수리로 화하시며 또 7일간은 호랑이로 화하시며 진정으로 그 용태가 독수리와 호랑이의 모습이였다. 또 다른 7일간은 응결된 피(血)로 화하시어 오로지 안식을 취하는 피로 화하시곤 하셨다.”¹⁵⁾

바로 위의 설명을 볼 때, 구꾸마쯔왕의 비범한 권능은 독수리(天)-호랑이(地)-뱀(水中과 地下)으로 변신하는 神王다운 자질에서 나타난다. 여기에서 구꾸마쯔는 곧 켓잘꼬아뜰이다. 다만 그 이름과 왕조의 시대만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동일한 신화적 실체인 것이다. 그러나 키체왕국의 켓잘꼬아뜰은 종전의 신왕보다 직접 몸으로 뛰면서 자신의 영역을 확인하며 통치한다는 대목에서 과거보다는 획기적이다. 왜 국왕이 변신을 해가면서 직접 뛰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자. 먼저, 왕권창출을 위한 신화소의 설정면에서 볼 때, 구꾸마쯔는 ‘구꾸’(켓잘새:하늘:천상계)와 ‘꾸마쯔’(뱀룡:물:바다:수중계)의 상형결합체로서 상징하는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박혁거세의 왕권창출을 위한 신화에서 나타난 천마(천상계)-닭(지상계)-뱀룡(수중·지하계)간에 결혼을 통한 유기적인 완전통합의 구조에 비해 구조면에서 좀 더 보강해야할 필요성이 본래부터 제기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구조상의 하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구꾸마쯔왕은 7일씩 천상계 지상계 지하계를 직접 순회적으로 왕임하여 세 권역을 자신의 기본 세력권인 수중계와 통합을 실행함으로써 최고 통치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구꾸마쯔의 신통력에서 특기할 것은 바로 7일간을 주기로 한 변태(mutación: metamorfosis)를 들 수 있다. 이것은 라마교적인 ‘환생’과도 통하며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전생(metempsícosis)과도 통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은 얼핏 보면 ‘만물은 유전한다’는 판타레이(panta rhei) 사상을 초자연적으로 발전시킨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15) *Ibid.*, pp.149-150 참조.

는 ‘물질불멸의 법칙’과 ‘물질의 순환원리’를 응용한 과학성을 띤 신화처럼 보인다. 예컨대 ‘7일간의 응결된 피’는 그 다음 주기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하기 위한 준비단계를 시사하는 새로운 창조적 元素의 형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비교신화적 안목으로 볼 때, 구꾸마쯔가 ‘7일간 독수리로 변신하여 하늘을 날아 다니는 것’은 7일간의 천국방문을 의미한다. 이것은 박혁거세의 빈번한 천국방문과 유사성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7일간의 천상계 방문 후에 다시 지하국 시발바를 방문하고자 7일간을 걸어서 내려가며, 7일간은 뱀으로 화한다”고 하는 대목은 박혁거세가 지상의 庶政을 하다가 천국방문을 자주 하였다는 설화와 유사하다.¹⁶⁾ 특히 박혁거세가 즉위한지 61년째 되던 해에 ‘7일간의 천국방문’ 끝에 天帝의 노여운 벌을 받아 혁거세의 몸뚱이가 땅으로 추락하여 다섯 토막이 됴으로써 다섯 묘 즉 오능(일명 蛇陵)에 묻히게 됐다는 설화에서 ‘7일간’이라는 數字¹⁷⁾는 구꾸마쯔의 ‘7일간의 천국방문’과 서로 근사하게 통하는 점이 있다.

IV. “큰 뱀”과 “용”의 고장의 유사성

메소아메리카의 인디오 문명의 본산지였던 멕시코 고원과 마야 문명으로 유명한 유카탄 반도와 과테말라에는 옛날에 뱀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뽀뽀부」 제3부 제8장에는, “키체왕국의 사제들과 제물공회 집사들이 또힐(Tohil)신을 모시던 숲속에는 뱀들, 호랑이들, 살모사들과 각종의 독사들이 대단히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¹⁸⁾ 그래서 메소아메리카의 고원지방에서는 예로부터 흉년으로 인해 식량이 부족하였을 때에는 부득이 산야에서 곤충과 파충류를 잡아 먹었던 때가 있었다고 미국의

16) 박성봉/고경식, 앞의 책, 67-68쪽 참조.

17) ‘일곱’이라는 수는 ‘사물의 한 단락’, ‘한 주기’, ‘苦盡’, ‘盡人事’, ‘완결’, ‘완성’, ‘행운’ 등을 상징한다.

18) Adrián Recinos, *op. cit.*, p.119 참조.

문화인류학자 마빈·해리스(Marvin Harris)가 지적한 사실도 나름대로 수긍이 간다. 한편, 메소아메리카의 인디오들은 먼 옛날에 ‘짓지 못하는 개’를 많이 길렀는데 이 원시적인 개의 사육은 역시 고대의 인디오들의 식용으로 쓰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뱀이 많았다는 사실은 현재 멕시코합중국의 國章을 보면 호수의 바윗돌 위에 있는 선인장 나무 위에서 독수리가 ‘뱀’을 물고 있는 그림에서도 그 근거를 엿볼 수 있다. 「뽀뽀부」 제3부 제9장에는, “태초에 태양이 나오기 이전에는 땅의 표면이 축축사계 습하여 진창투성이었다. 그러나 태양은 마치 어느 남성처럼 일어나 솟아 올랐다. 태양이 발산하는 열은 견디기가 어려웠다. 뜨거운 태양열 때문에 얼마 후에 또힐 神, 아빌릭스신, 하카비쯔신은, 사자, 호랑이, 뱀, 왕뱀, 그리고 요정 등 신성한 존재들과 함께 모두 돌로 변하고 말았다.

이들이 돌로 화하지 않았더라면 사자와 호랑이, 뱀, 큰 뱀과 요정 등 계절스런 짐승들 때문에 우리는 살아 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 당시에 그 뜨거운 원시의 태양의 역할에 힘입어 최초의 동물들이 돌로 화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우리 인간들의 영광은 오늘날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전하고 있다.¹⁹⁾

위에서 원시의 태양열 때문에 화석이 된 ‘또힐’ ‘아빌릭스’ ‘하카비쯔’는 키체 인디오족의 三神으로서 당초 멀리 오리엔테(Oriente) 즉 유카탄 반도에서부터 모시고 다니던 신들이었고, 이 신들은 강물에서 미역을 자주 잡았던 신으로도 유명하다. 그것은 아마도 그들 삼신이 ‘뱀룡’에 근거를 둔 水神임을 시사해 준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또한 태초의 태양열 때문에 메소아메리카의 각종 뱀과 뱀무리들이 화석화 하지 않았다면 인간들의 생존에 지장을 초래했을 것이라는 대목에서 우리는 메소아메리카의 수풀에 실제로 뱀들이 엄청 많았음을 알 수 있고, 뱀들의 소사는 뱀신들에 대한 수난을 예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박혁거세와 왕비 알영의 죽음과 관련한 설화를 보면, “왕과 왕비

19) *Ibid*, pp.122-123 참조.

를 잃은 서라벌 사람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은 두 사람의 큰 덕을 사모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왕과 왕후의 능을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큰 뱀뱀이 몰려나와 무덤을 만들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떨어진 박혁거세의 시체 다섯 토막을 따로 따로 묻어서 무덤을 만들어야 했다. 이것이 오능이다. 당시 뱀이 나왔다고 해서 사능이라고 한다”라고 전하고 있다.²⁰⁾ 서라벌의 오능이 위치한 곳들을 비롯하여 ‘숲’이나 ‘물’과 관련이 깊은 지명인 계림이나 사랑리 등에는 실제로 뱀들이 많았음을 짐작하게 된다.²¹⁾

용성국의 함달과왕과 적녀국의 왕녀 사이에서 태어난 석탈해왕의 난생 신화와 관련하여, 왕비가 낳은 커다란 알을 껍째에 넣어 배에 실어 멀리 바다로 띄워 보냈다는 대목이 있다. 그중에서도 ‘뱀뱀’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이렇다:

“궤를 실은 배는 물결치는 대로 파도에 밀려 멀리 멀리 떠나가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홀연히 붉은 용이 한 마리 나타나더니 배를 호위하기 시작했다.”²²⁾

결국 석탈해왕과 인연이 된 이 ‘붉은 용’은 아기 탈해가 들어 있는 궤 짝이 담긴 배를 인도하여 신라에 당도한다. 신라인이 된 탈해는 장성하여 실력을 확보한 다음 그 당시 재상으로 실세를 잡고 있던 “호공”의 집을 빼앗고 마침내 왕위에 오르게 되었으며, 죽어서는 토함산의 산신이 된다. 탈해의 본국이 용성국이라는 것과 그 나라에는 人胎를 쫓아 나온 스물 여덟 용왕이 있었다는 설화와 탈해가 탄 배를 ‘붉은 용’이 호위해 왔다는 이야기는 탈해가 소속하는 종족이 남방 해양계의 용토텐(totem)족임을 말해 주고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²³⁾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용’

20) 한상수, 앞의 책, p.288 참조.

21) 오늘날에도 경주를 포함한 인근의 울산, 양산, 등지에는 “뱀골”/“용골”/“용곡(龍谷)”이라는 지명을 가진 곳이 있다.

22) 한상수, 앞의 책, p.299 참조.

이라는 신화동물은 본래 ‘뱀’을 기초로 하여 ‘보다 높은 상상의 사닥다리’를 등반한 다음에 만들어 냈다고 하는 점이다. 또한 ‘용성국’은 신라인들이 평소에 동해의 수중에 있다고 믿었던 ‘용왕국’과 같은 개념이며, 그것은 신라인들이 일찍부터 토함산에서 바라본 ‘해뜨는 동해바다의 신비’에서 그러한 비전을 터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뱀룡의 종말과 관련하여 지적할 수 있는 뽀뽀부의 내용과 삼국유사의 내용상에 공통점은, 전기 ‘마야’ - ‘폴테카’ - ‘아스테카’ - 고전기 ‘마야’ 및 ‘마야’신제국 - ‘키체’ 시대로 이어지는 신화에서 신성시한 뱀신 켓잘 꼬아뜰과 삼신(또힐, 아빌릭스, 하까비쯔)은 모두 죽어서 돌이 된다²⁴⁾는 점과 용마가 되어 천국을 다니던 박혁거세가 추락사하여 오능에 묻혀 土石化된다는 서로 비슷한 종말이다. 이러한 혁거세의 종말은 결국 내용면에서 볼 때, 죽어서 토함산에 산신령이된 석탈해에 비해 불행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왜냐하면 석탈해는 산신령으로서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기에 그렇다. 또한 메소아메리카의 경우에도, 인디오들의 사상에는 그 신성한 뱀룡의 죽음은 ‘태양신의 갈증’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믿고 있으며, 옥타비오·파스(Octavio Paz)의 시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순환하는 새로운 신의 일부로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차가운’ 뱀신은 ‘뜨거운’ 태양신에게 패하여서 새롭게 작렬하는 태양신의 몸속에 용해된 채 ‘순환적’이고 ‘윤회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²⁵⁾

23) *Ibid.*, p.304 참조.

24) Adrián Recinos, *op. cit.*, p.122 참조.

25) 1790년 멕시코시에 있는 Plaza Mayor 광장에서 발굴된 “태양의 돌”(Piedra del Sol)은 태양거석 신상으로서 그 무게가 24톤(직경 3.58m)에 달한다. 이 거석신상의 한 복판에 태양신(Tonatiuh)의 얼굴이 있고 오른쪽 옆에는 뱀룡의 두상이 보인다. 둥근 석상의 둘레는 아스테카 역(Calendario Azteca)으로서 한 해의 천문역수에 관하여 상세하게 조각으로 표시하고 있다.

V. 마무리

동양이나 서양을 막론하고 대개 용에 대한 상상은 그 시발점을 ‘뱀’에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러한 상상은 주로 뱀이 서식하고 있거나 뱀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발상되었고, 한번 공격을 받아 물리면 치명상을 주는 독사와 외관상으로도 무서운 경악심을 주는 큰 뱀에 대한 공포심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신화소로서의 ‘용’의 이미지 속에는 인류가 뱀의 공격에 의한 죽음에 대하여 태초부터 느끼고 생각하며 행동해 온 모든 감정들과 체험이 침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감정과 체험은 단순히 소극적인 자세에 머물지를 않고 인간의 약점과 공포심을 극복해 보려는 근원적인 심성을 표출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과정에서 ‘용’의 상징화(iconología)가 고안된 것이다. 따라서 뱀을 능가하고 큰 뱀을 초극하는 신격화 된 최고막강의 상징동물로서 용을 필요하게 된 것이다. 용을 상상해 내는 데에는 사다다리식으로 상상력을 심층화 하는 과정을 통하여 미학적인 부가가치의 결실로서 얻어낸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보편적인 인간성의 조건을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의 정신문화사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지금껏 필자가 분석하여 본 켓잘조룡이나 계룡은 노드롭·프라이(Northrop Frye)의 「비평의 해부」(Anatomy of Criticism)에서 해석된 악마적 원형으로서의 큰 뱀이나 용이 아니다. 흔히 서양에서는 중세의 로만세(romance) 문학이나 기사도 문학 그리고 고딕(gótico)적 환상의 이야기 속에서 용을 하나의 무절러야 할 악의 상징물로서 등장시킨 것은 잘 알려진 전통처럼 되어 있었다. 그런데 서양에서도 켈트족 계통의 드루이다교도들(los druidas)은 善龍에 관한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메소아메리카에서나 한국에서나 용은 天-地-水의 통합체적 지존자의 상징이다.

켓잘조룡은 계룡과 마찬가지로 뱀의 원형상이다 鳥類 원형상을 보태어서 만들어 낸 용상이라는 데서 같은 신화소재를 사용한 동족적 용상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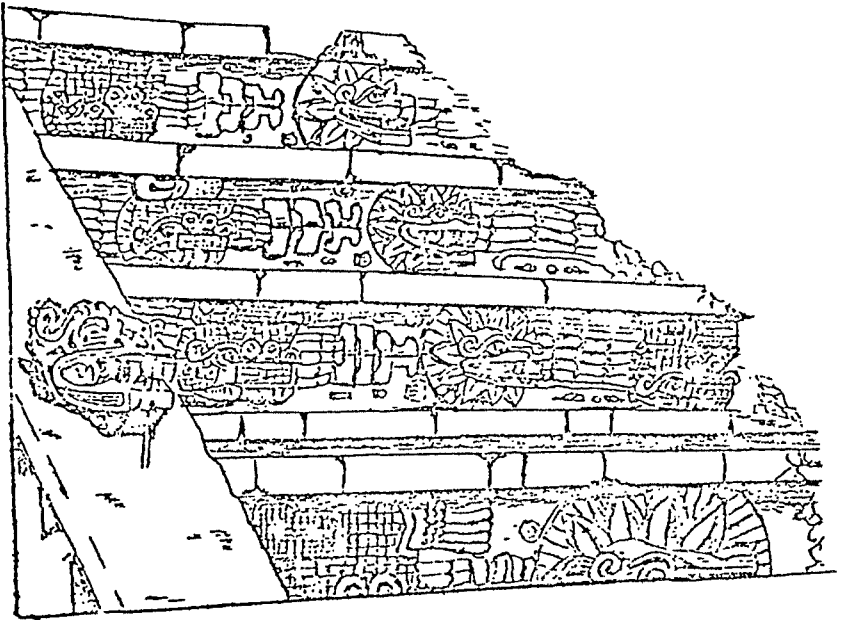
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말하는 동양룡은 언제나 옥황상제(天神)의 명을 따라 악을 응징하는 부하이거나 착한 사람을 선계(仙界:천국)로 인도하는 사자,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따르는 선인, 부처와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 또는 비를 내리어 농사를 짓게 하고, 사람과 친하게 사귀며 결혼도 할 수 있고 출세를 도와주는 우호적인 존재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동양에서는 용을 '봉황', '기린', '거북'과 함께 네 가지 상서로운 동물 곧 四靈으로 생각하며, 또한 '지존자', '왕', '무병장수', '불멸불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전승해 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집약되는 요점은, 1. 켓짤조룡이나 계룡은 똑같이 통치권의 통합지향적 원형상이다. 2. 켓짤조룡은 제정일치시대의 국왕이나 지존자를 상징하며, 계룡은 왕비의 모 또는 왕비를 표상하였다. 3. 켓짤조룡과 계룡은 본래 水邊이나 수중계를 거처로 하였다. 4. 이들 두 용은 모두 비의 신으로서 농사와 농업의 수호신이다. 5. 둘 다 '지혜의 신'으로서 백성을 선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악룡이 아니고 선룡이다. 이상의 제 공통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삼국통일을 수행한 신라의 계룡상(像)이나 메소아메리카의 인디오 강대국이었던 마야, 톨테카, 아스테카, 키체 등의 켓짤조룡상에는 강력한 통합지향적 민족의 의지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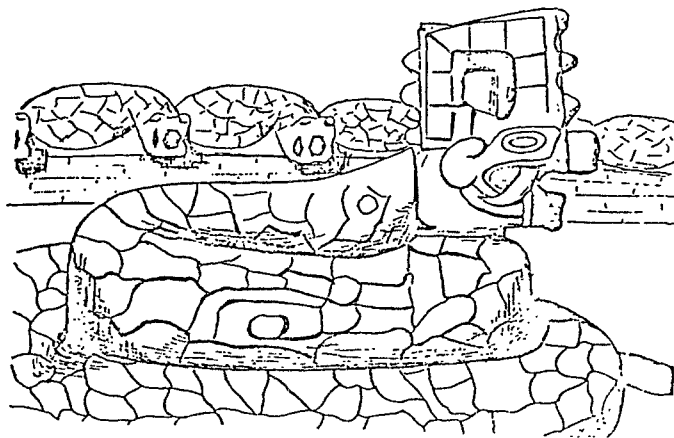
왜냐하면, 이 두 원형상은 먼저 치명적인 독을 가진 독사의 공격적이고 보복적이며 정복지향적 이미지를 기초로 하여, 깃털을 가진 켓짤이나 닭의 포용적이며 인자하고 통합적이며 초월적인 이미지가 한 데 어우러져 잘 조화를 이룬 원형의 총화이기 때문이다. 동양철학적 사상으로 해석하면, 결국 음과 양이 훌륭한 조화의 미덕을 갖춘 원형상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부록 :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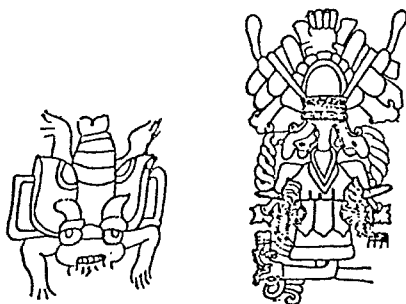
멕시코 테오티와칸에 있는 킷잘꼬아틀 피라미트의 킷잘조룡의 형상

부록: 그림 2.



멕시코시 북방 10킬로미터에 위치한 떼나유까의
피라밋 계단 근처 켈짤조룡의 형상

부록: 그림 3.



멕시코 베라크루스주 따헌에 있는 새부리를 가진 켈짤 조룡의 형상

참고문헌

- 김열규, 한국의 신화. 서울: 일조각, 1989.
- 박성봉/고경식(공역), 삼국유사. 서울: 서문문화사, 1985.
- 양명학, “한국소설에 나타난 용과 용궁의 상상”, 울산대학 어문논집, 제 3집 1987.
- 이부영, 분석심리학. 서울: 일조각, 1988.
- 한상수, 한국인의 신화. 서울: 문음사, 1987.
- De Morán, Concepción Barrón. *Historia de México*. México:Editorial Porrúa, 1964.
- Díaz-Bolio, José. *La Serpiente Emplumada: eje de culturas*, Registro de Cultura Yucateca, 1965.
- Jung, Carl Gustav. *Über die psychologie des Unbewussten*. Zürich:Rascher, 1964.
- _____. *Von den wurzeln des Bewusstseins*. Zürich:Rascher, 1954.
- Recinos, Adrián(Traductor). *Popol Vuh:Las antiguas historias del Quiché*. México:Fondo de Cultura Económica, 1987.
- Redactores del Editorial Planeta. *Nueva Enciclopedia Larousse*, tomo VIII.Barcelona-Madrid:Editorial Planeta, 1984.
- Veiravé, Alfredo. *Literatura Hispanoamericana*. Buenos Aires:Kapelusz, 1976.
- 笹間食彦, 龍-神秘と 傳説の 全容-. 東京都: 刃劍春秋新聞社, 1975.

《Resumen》

Estudio sobre los símbolos mitográficos de los dragones:
Quetzalcóatl de Mesoamérica y Guieriong de Sinra

Kim, Chang-Hwan

Quetzalcóatl y Guieriong pertenecen a la misma especie de imágenes dragontinas, pues ambos nacieron sintetizados entre el arquetipo serpentino y el avícola, a base de la misma mitologema: el ave o gallo y la serpiente. Si hubiera alguna minuciosa diferencia entre ambos dragones podría ser el hecho de que Quetzalcóatl era ciertamente un rey, mientras que Guieriong era la madre de la Reina o la Reina misma. De todos modos, ambos arquetipos dragontinos contribuyeron del mismo modo a edificar la soberanía real de su país.

Si bien la imagen de la serpiente dotada del fatal veneno es agresiva, vengativa y dominativa, la imagen del quetzal o del gallo con plumas es acomodaticia, generosa, unificativa y trascendental. Conforme a esta visión analítica, me gustaría llegar a la conclusión de que la imagen arquetípica de ambos dragones, Quetzalcóatl y Guieriong, se relaciona directamente con la edificación de la suma potencia del soberano y al mismo tiempo con la más activa capacidad nacional de las razas originarias de la Mesoamérica y de la Corea Antigua (la de Sinra). Con este trasfondo mitológico, los Imperios tolteca, azteca, maya y quiché, entre otros, pudieron absorber y unificar respectivamente bajo su poder a todos los pequeños Estados del Valle del México y de la Península yucateca y de Guatemala. Tal potencialidad ya contendría quizás desde

el principio la imagen arquetípica del Quetzalcóatl. Ahora bien, al leer la Historia de Corea, también llegamos a conocer cómo el Reino de Sinra, a su vez, logró con su iniciativa la unificación de los Tres Reinos: Sinra, Bekdche y Kokuryo. Esto nos infunde la suposición de que la imagen arquetípica de Guieriong podía tener alguna relación(o el presagio) con la fuerte voluntad y la capacidad nacional del pueblo sinraense que cumpliría la unificación territorial de los tres reinos y este hecho histórico tampoco sería eventual.